

가사노동의 모녀간 세대전달과 관련변수*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ousehold work
from mothers to married daughters and related variables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연 속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 경 은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Prof. : Lee, Yon Suk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Park, Kyung-E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ion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ousehold work from mothers to their married daughters. The subjects were 415 married daughters and their mothers living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this study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married daughters' value of household work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otal periods of marriage for daughters, daughter's perceived similarity to their mothers' household work.

Second, married daughters' preference for household work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mother's occupation (managerial · professional), mother's perceived similarity,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daughter's experience of living with mother-in-law, daughter's sex-role attitude, and daughter's perceived similarity.

Third, married daughters' ability to do household work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otal periods of marriage for mothers, mother's perceived similarity, and daughter's perceived similarity.

Fourth, married daughters' standard of household work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mother's perceived similarity, daughter's occupation (technicians · clerk), daughter's monthly income, and daughter's perceived similarity.

Fifth, married daughters' usage level of home equipment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mother's birth order, mother's education, mother's occupation (managerial · professional), daughter's birth order, daughter's education, and daughter's monthly income.

Sixth, Mother related variables had greater power than daughter related ones in explaining daughters' values and preference for household work values and preferences and usage of home equipments

In conclusion, married daughter's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of household work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mothers. It was especially so in daughter's usage level of home equipment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existence of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ousehold work from mothers to their married daughters with regard to its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counsellors, practitioners and educators.

◆ key word: 가사노동, 모녀간 세대전달, 가사노동의식, 가사노동수행과정

I. 서론

가사노동의 교육적이고 상호이해적인 특성은 가사노동의 성격 중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사노동이 가정내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사노동은 주로 동일시와 모방을 통한 딸에 대한 가정내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사노동을 익히고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어머니가 딸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사노동의 기능과 기술을 가르쳤었다는 조선시대 여러 규범서의 내용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이길표와 주영애, 1992).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모녀간의 가사노동을 통한 상호작용이 다양한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김성희, 1996).

이러한 상황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나 수행방식

이 '윗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원간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이고 상호이해적인 측면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딸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모녀관계를 여성학적으로 접근한 박신규(1992)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직 여성인 딸의 경우 성장기와 미혼기를 거치면서 어머니와의 거리감이 생기는데 그 거리감은 딸이 결혼하여 출산, 양육을 하게 되는 다중 역할시기에 들어서야 좁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두 여성이 모두 어머니-어머니라는 공유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공

유감 형성을 가사노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유감 형성은 가사노동의 교육적이고 상호이해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연숙·박경은(2000)의 연구에 의하면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은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은 기혼딸 각각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모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어 가사노동이 세대간에 전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모녀간의 가사노동 세대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다양한 요인은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세대간 전달과정을 좀더 정교하게 밝혀내고자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모녀간의 가사노동 세대전달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노동의 개념 및 영역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가장학적 관점에서, 가사노동이 가족의 육구충족과 가정생활의 유지기능(박인경, 1986; 조미환, 1996), 기술습득과 교육의 기능(조미환, 1996; 윤숙현, 1998), 그리고 가정문화의 창조와 전달기능(윤숙현, 1996; 박인경, 1986; 大森和子 외 3인, 1981, 조미환 1995)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사노동은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사노동과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세대전달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가사노동을 각 영역별로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① 식생활 영역 - 일상적인 식사준비(밥하기, 반찬 만들기), 손님초대를 위한 특별음식 만들기, 김치·

장담그기나 밀반찬만들기, 설거지, 상차리기

② 주생활 영역 - 집안청소, 주택손질(간단한 집손질, 가구, 전구 등), 집안꾸미기, 집안의 화초가꾸기 및 정원손질

③ 의생활 영역 - 세탁, 다림질(정리와 다림질), 바느질(옷수선), 옷만들기(재봉틀, 손바느질, 수편물 등)

④ 가족돌보기 영역 - 신체적 자녀돌보기, 비신체적 자녀돌보기, 다른 가족원돌보기(남편·웃어른 시중, 출근준비 등)

⑤ 가정경영 영역 - 가정의 계획세우기, 가계부기록, 은행 및 관공서 출입, 장보기(시장이나 상점에서 식료품과 일용품사기, 전화주문, 의복, 가구, 가전제품 구입)

2.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¹⁾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의식과 수행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된다. 가사노동의 의식은 가사노동관과 가사노동 선호도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가사노동관이란 가사노동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개념이며, 가사노동 선호도는 다른 연구들의 가사노동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5개 영역의 20가지 개별 가사노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가사노동 수행과정은 가사노동 능력, 가사노동 표준, 가정기기 사용의 세가지 과정이 포함된다. 가사노동 능력은 주부가 가사노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의 개념이며, 가사노동 표준은 각 가사노동의 하위영역을 얼마나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생산물 표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3. 가사노동의 세대전달

1) 세대와 세대전달의 개념

'세대'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으며 상황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

1)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는 이연숙·박경은(2000)의 "가사노동의 모녀간 세대전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pp29-44 연구를 참고.

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 가정 가족내에서 어머니와 딸간에 일어나는 세대전달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부모세대' 혹은 '자녀세대'와 같이 가계 계승의 원리로서 세대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행동하고, 느끼고, 관계를 맺고, 현실을 규정하고, 친근감이나 거리감에 대처하는 양식과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것을 '세대전달'(generational transmission)이라고 한다(Burr 외 2인, 1993, 최연실 외 5인 역, 1995). Troll과 Bengston (1979)은 세대전달이 공동체 영역보다 가족영역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에서 세대전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모-자녀관계의 특질에서 찾을 수 있다. 김재은(1974)은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자녀라는 서로 다른 세대간의 관계로서,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관계라고 하고 있다. 가족내 세대인 부모-자녀관계가 갖는 성격과 이를 통한 가정교육의 기능에는 이미 세대과정의 개념이 수반되어 있다.

Millar(1961)는 가치관과 시간, 금전, 가사노동 기술 등의 자원에 대한 가정관리 유형이 3세대간에 전달되는지를 보았다. 그 결과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가치들이 3세대를 통해 전달된다고 하였는데, 가정관리 패턴에서는 윗 세대의 관습보다 자신들 세대의 관습을 더 따랐다. 그러나, 가사노동 기술에 대한 관리에서 3세대간에 어떤 공통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딸이 어머니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경자·홍계옥(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근면 검소 절약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대생인 딸의 근면 검소 절약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2) 모녀간의 세대전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회화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육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부모는 자녀의 생활모델로서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녀는 동일시를 통하여 부모의 도덕성이나 성격구조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하게 된다(지영숙 외 2인, 1996).

Freud는 5살까지 맡아서 기르는 어머니의 육아방식에 의해 아이의 성격이 고정된다고 하여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지영숙 외 2인, 1996에서 재인용), 특히 어머니와 딸은 부계가족에서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서로 동정하게 되고 여로서 생활영역이 같으며 관심이 같기 때문에, 딸은 어머니를 역할모델로 어머니의 행동과 역할을 모방하고 동일시하게 된다.

따라서, 딸은 가사노동 수행자로서의 어머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을 배우며 동성인 자신도 가사노동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전통사회에서 딸은 어머니를 돕는 조수로서 일찍부터 요리, 침선, 방적, 육아, 예절 등을 어머니로부터 실생활에서 배우고 실습하며, 어머니를 모방하고 동일시하면서 여성의 모든 역할과 필요한 지식, 기능과 태도를 배웠다(김애련과 채옥희, 1996). 오늘날의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딸이 아들보다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수와 고정애, 1985).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사노동에서 모녀간 세대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여러 가지 가사노동의 의식과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수를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수

(1) 연령

연령에 따라 가사노동의 영역별로 가사노동 태도 및 선호도가 달라지며(김외숙, 1981, 김외숙, 1984 ; 이은경, 1992 ; 김애련과 채옥희, 1996),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박인경, 1986).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수행표준이 높았다(조성은, 1991).

(2) 결혼지속연수

결혼지속연수가 오래될수록 가사노동 선호도가 높아지며(이기숙, 1982 ; 이은경, 1992), 가사노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경(1986)의 연구에서도 결혼지속연수에 따라 가사노동의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출생순위와 딸의 비율

일반적으로 중간자녀가 좀더 분담수행을 잘하고, 막내는 대체로 잘 하지 않으며 장자녀는 정신적으로 많은 책임을 진다. 가족내 어린 형제수가 많을수록 윗형제는 일상의 가사노동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진다(김혜선 외 2인, 1990). 이러한 출생순위에 따른 분담경험은 가사노동의 가치관의 형성이나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도 달라져 가사노동에 있어 어머니의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생순위에 따라 가사노동의 세대전달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변수에 포함시켰다.

한편, 딸의 비율은 형제수나 출생순위와 관련되어 가사노동과정에 차이를 줄 수 있다. 특히 평균 자녀수가 많았던 어머니 세대의 경우 형제자매의 연령범위가 넓고 가사노동의 참여가 많았기 때문에, 딸의 비율은 가사노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가사노동의 능력과 표준 등의 가사노동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딸의 비율이 가사노동 전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로 채택하였다.

(4) 학력

어머니의 학력은 가치의 세대전달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김경신, 1987 ; 김경신, 1989 ; 현은민, 1995). 안옥희와 박인전(1993)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학력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또는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김외숙, 1981),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박인경, 1986). 오혜영(1982)의 연구에서는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를 딸이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가사노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력이라고 하였다. 김봉애(1987)

는 여고생의 가사노동 능력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여 어머니의 학력이 딸의 가사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확대기의 가정주부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시간 관리전략으로 표준을 낮추는 간소화 방안을 사용하였다(채옥희, 1995).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기기를 많이 사용하였다(조정은, 1991 ; 채옥희, 1995 ; 채옥희, 1997).

(5) 월평균 수입

안옥희와 박인전(1993)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에 관한 가치의식이 월평균 수입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수입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보였으며, 이기숙(1982)의 연구에서는 수입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수(1994)의 연구에 의하면 기혼딸과 그 친정어머니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전체적인 관리능력이 높았다(지금수, 1994). 또한, 월평균 수입은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고용인 사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옥희, 1995 ; 채옥희, 1997).

(6) 직업종류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할 때 자녀들이 일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업주부의 자녀보다 결혼전에 가사노동 습득기회와 활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집단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집단들이 가정과 학습내용 활용정도가 다르다는 김은주(1985)의 연구는 이를 잘 뒷받침한다. 취업주부의 직업종류에 따라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전문직이 가장 긍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박인경, 1986), 가사노동 능력의 경우 전업주부보다는 취업주부의 능력이 낮았다(지금수, 1994).

주부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방안을 연구한 이승미(1989)에 의하면, 전문직 주부가 가정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비취업 주부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대체용역의 고용정도에서도 전문직 주부의 고용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비취업주부였다. 수행표준 정도는 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에 비해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수행표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취업주부는 직업지위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업관련 변수는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능력과 표준, 사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7)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와의 동거경험

결혼후 딸은 본격적인 가사노동의 주체가 된다. 여대생이나 결혼전기 여성의 가사노동 능력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박인덕, 1973 ; 정미아, 1992 ; 이정우와 윤현희, 1996) 딸은 결혼후에 대다수의 가사노동에 대한 능력을 익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직업을 결혼후에도 계속 가지게 될 경우 신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기혼딸의 가사노동과 결혼 적응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김기순·유영주(1994)는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상호지지를 연구한 결과 기혼딸은 서비스지지를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로부터는 더 많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후의 친정어머니 혹은 시어머니와의 동거경험은 기혼딸의 가사노동의 의식 및 수행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가사노동의 세대전달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 변수로 채택하고자 한다.

2) 심리적 변수

(1) 성역할 태도

안옥희와 박인전(1993)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가사노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간적인 태도를 지닌 집단과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집단이 가사노동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호의적인 가사노동 태도를 나타내었고(이은경, 1992),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어머니의 가사작업 능력은 감소하였다(지금수, 1994). 그리고,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데(정연주와 문숙재, 1987 ; 정지영, 1990),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 고용인의 사용이나 기기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답음의 인지

‘답음의 인지’(perceived similarity)는 응답자가 인식한 모녀간의 가사노동 수행방식의 일치성이다. 답음의 인지를 변수로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답음의 인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는 ‘지각’(perception)을 측정할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Acock와 Bengston(1980)은 부모와 자녀의 실제 가치관의 일치도보다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가치관과의 일치도가 높다고 하였다. Callan과 Gallois(1983)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모녀간 상관관계는 낮았으나, 딸의 가치관과 딸이 지각한 엄마의 가치관이 높은 상관관계는 보였다. 김경신(1989)의 연구에서도 가치지각이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가치전달에 높은 영향력을 미쳤다. 오혜영(1982)에 따르면 여고생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은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지각된 어머니의 태도에 동일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인식한 경우 그 자녀의 80.5%가 같은 태도를 나타냈다. 이것으로 보아 가사노동의 수행방식에서도 모녀가 서로 상대방과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가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의 세대 전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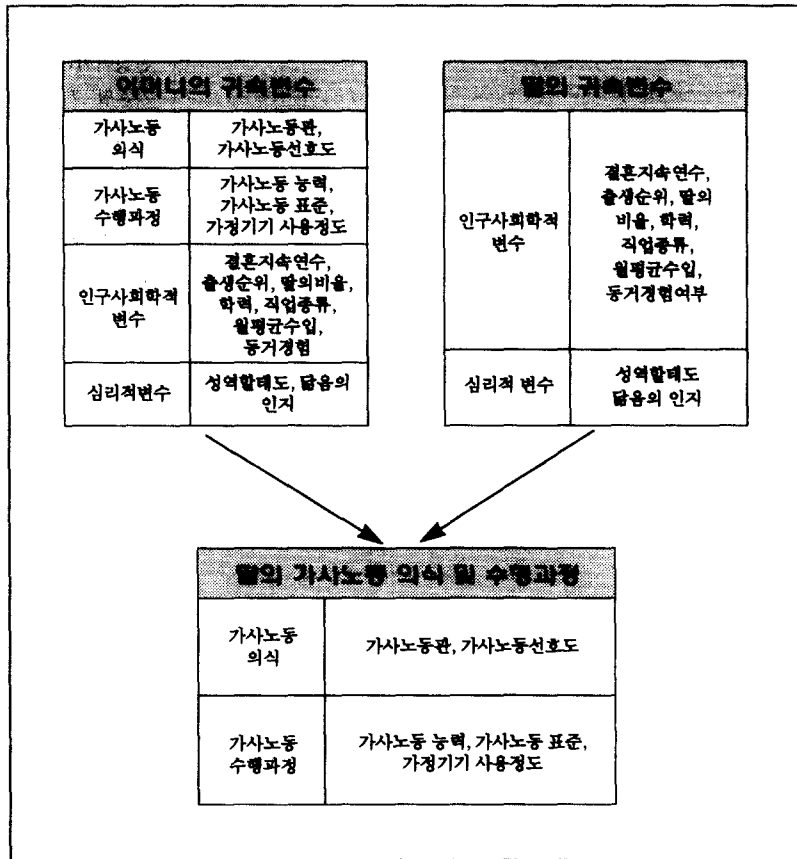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심리적 변수가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심리적 변수가 기혼딸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여러 변수군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모형



〈그림 1〉 모녀간의 가사노동 세대전달에 관한 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과 그 여성의 친정어머니이다. 설문지는 기혼딸을 중심으로 배부되었고, 기혼딸은 자기기입식으로, 친정어머니는 딸이 어머니를 방문하여 어머니가 직접 기입하거나, 전화로 인터뷰하여 그 결과를 딸이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조사원의 인터뷰와 연구자의 인터뷰도 병행되었다. 3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질문지를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총 561쌍의 설문지가 배부

되었고 이 중 415쌍이 회수되어 약 7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부실기재된 것이나 친모녀간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운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총 375쌍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3. 척도의 구성 및 측정방법

척도는 가사노동 의식, 가사노동 수행과정, 사회인구학적 변수, 심리학적 변수로 구성되는데 측정방법과 신뢰도 계수는 〈표 1〉, 〈표 2〉, 〈표 3〉과 같다.

〈표 1〉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변수의 측정

		척도구성과 의미	신뢰도계수	참고문헌
1)	가사노동 의식	· 총 6개 항목의 5점 likert척도 ·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사노동관	친정어머니 .81 기혼딸 .77.	정영금(1989), 박인경(1986)
	가사노동 의식 선호도	· 총 20개 항목의 5점 likert척도. ·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사노동을 더욱 선호	친정어머니 .86 기혼딸 .86	한경미(1987), 정영금(1989)
2)	가사노동 능력	· 총 20개의 항목의 5점 likert척도 · 점수가 클수록 가사노동을 잘하는 것을 의미	친정어머니 .89 기혼딸 .87	한경미(1987), 이미선(1991)
	가사노동 표준	· 총 20개의 항목의 5점 likert척도 ·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표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친정어머니 .90 기혼딸 .89	이미선(1995)
	가정기기 사용	· 총 7개 항목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 · 점수가 클수록 가정기기를 더 많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	친정어머니 .54 기혼딸 .53	이승미(1989), 정연주(1987)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측정

변 수	측 정 방 법
연 령	만 몇 세
결혼지속연수	몇 년 몇 개월
출생순위	몇 남 몇 녀 몇 째
딸의 비율	딸의 수 ÷ 형제수
학 령	①초등졸 이하 ②중졸 ③고졸 ④전문대졸·대학중퇴 ⑤4년제 대학졸 ⑥대학원 이상
직업종류*	①관리·전문직 ②기술직·사무직 ③판매·서비스직 ④단순노무직 ⑤없다
월평균수입	1년동안의 근로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친 월평균 금액
동거경험	①현재 친모와 ②과거 친모와 ③현재 시모와 ④과거 시모와 ⑤없다.

* '한국표준직업분류'(노동부, 1995)를 이용하여, 관리직과 전문직을 관리·전문직으로, 기술직 및 준 전문직을 기술직으로, 사무직은 사무직으로, 판매 및 서비스직을 판매·서비스직으로, 생산직과 노무직을 생산노무직으로 구성하여 5가지로 재분류하였다.

〈표 3〉 심리적 변수의 측정

		척도구성과 의미	신뢰도계수	참고문헌
성역할태도	담음의 인지	· 총 8개 항목의 5점 likert척도 ·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낮을수록 근대적	친정어머니 .75 기혼딸은 .68	Osmond와 Martin(1975)
		· 친정어머니는 결혼한 딸의 가사노동 수행방식이 자신과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기혼딸에게는 자신의 가사노동방식이 어머니와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 · 5점 likert척도로 응답 · 점수가 높을수록 서로 닮았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α 값을 구하였고, 모녀간 가사노동 세대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분석은 Spsswin 7.5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조사에서는 375쌍의 기혼딸과 친정어머니를 최종분석에 포함시켜 조사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심리적 변수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은 <표 5>과 같다. 친정어머니의 성역할 태도는 약 26.1

<표 4>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친정어머니			기혼딸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1)40대(~49세)	15	4.0	1)20대(~29세)	136	36.4
	2)50대(50~59세)	177	47.2	2)30대(31~39세)	178	47.6
	3)60대(60~69세)	125	33.3	3)40대(41~49세)	47	12.6
	4)70대이상(70세~)	58	15.5	4)50대이상(50세~)	13	3.5
	계	375	100	계	374	100.1
	평균(SD)	60.71(8.21)		평균(SD)	33.11(6.85)	
학력	1)초등학교 졸업 이하	100	22.7	1)중학교 졸업이하	5	1.4
	2)중학교 졸업	84	25.5	2)고등학교 졸업	85	22.8
	3)고등학교 졸업	128	23.0	3)전문대졸및대학중퇴	56	15.1
	4)전문대졸및대학중퇴	14	13.9	4)4년제 대학졸	168	45.2
	5)4년제 대학 졸업	48	8.6	5)대학원졸	58	15.6
계	374	6.4	계	372	100	
	평균(SD)	2.55(1.56)		평균(SD)	4.51(1.06)	
직업종류	1) 관리·전문직	28	7.6	1) 관리·전문직	126	34.9
	2) 기술직	6	1.6	2) 기술직	15	4.2
	3) 사무직	2	0.5	3) 사무직	34	9.4
	4) 판매·서비스직	19	5.1	4) 판매·서비스직	12	3.3
	5) 단순노무직	13	3.5	5) 단순노무직	3	0.8
	6) 없다	302	81.6	6) 없다	171	47.4
계	370	99.9	계	744	200.1	
월평균 수입	1)100만원이하	78	22.8	1)100만원이하	18	5.1
	2)101~200만원이하	101	29.5	2)101~200만원이하	144	41.1
	3)201~300만원이하	95	27.8	3)201~300만원이하	112	32.0
	4)301~400만원이하	31	9.1	4)301~400만원이하	48	13.7
	5)401~500만원이하	18	5.2	5)401~500만원이하	28	8.0
	6)501만원 이상	19	5.6	계	350	100
	계	342	100	평균(SD)	253.59(114.61)	
	평균(SD)	245.77(165.77)		평균(SD)	253.59(114.61)	

〈표 4〉 계속

	친정어머니			기혼딸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결혼지속 연수	1)~30년	83	22.4	1)1년 이하	49	13.1
	2)30.01~40년	155	41.8	2)1.01~5년이하	136	36.5
	3)40.01~50년	82	22.1	3)5.01~10년이하	131	35.1
	4)50.01~60년	40	10.8	4)10.01년	57	15.3
	5)60년~	11	3.0			
	계	371	100	계	373	100
	평균(SD)	38.60(9.77)		평균(SD)	7.69(7.29)	
출생순위	1) 첫째	82	22.7	1) 첫째(무남독녀 17)	146	39.2
	2) 둘째	92	25.5	2) 둘째	97	26.1
	3) 셋째	83	23.0	3) 셋째	60	16.1
	4) 넷째	50	13.9	4) 넷째	27	7.3
	5) 다섯째	31	8.6	5) 다섯째	24	6.5
	6) 여섯째이상	23	6.4	6) 여섯째이상	18	4.9
	계	361	100	계	372	100
	평균(SD)	2.82(1.56)		평균(SD)	2.32(1.51)	
딸의비율	1)~49.99%	17	4.5	1)~49.99%	28	7.5
	2)50.00%	120	32.1	2)50.00%	142	38.2
	3)50.01~99.99%	143	38.2	3)50.01~99.99%	142	38.2
	4)100%	94	25.1	4)100%	60	16.1
	계	374	100	계	372	100
	평균(SD)	57.41(19.61)		평균(SD)	64.20(21.91)	
동거경험	1)현재 친모와의 동거	3	.8	1)현재 친모와의 동거	29	7.8
	2)과거 친모와의 동거	33	8.8	2)과거 친모와의 동거	30	8.1
	3)현재 시모와의 동거	19	5.1	3)현재 시모와의 동거	40	10.8
	4)과거 시모와의 동거	175	46.7	4)과거 시모와의 동거	56	15.1
	5)동거한적 없다	145	38.7	5)동거한적 없다	217	58.3
	계	375	100.1	계	372	100

〈표 5〉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심리적 특성

	친정어머니			기혼딸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역할 태도	1)근대적(8~16점)	22	6.0	1)근대적(8~16점)	82	22.0
	2)중간적(17~25점)	134	36.5	2)중간적(17~25점)	235	63.0
	3)전통적(26점~)	211	57.5	3)전통적(26점~)	56	15.0
	계	367	100	계	373	100
	평균(SD)	26.05(5.71)		평균(SD)	20.67(4.90)	
답음의 인지	1)매우 답음	64	17.2	1)매우 답음	51	13.6
	2)답음	104	27.9	2)답음	91	24.3
	3)보통	107	28.7	3)보통	114	30.4
	4)답지 않음	77	20.6	4)답지 않음	93	24.8
	5)매우 답지 않음	21	5.6	5)매우 답지 않음	26	6.9
	계	373	100	계	375	100
	평균(SD)	2.70(1.14)		평균(SD)	2.87(1.14)	

점으로 약간 전통적이며, 기혼딸의 성역할 태도는 약 20.7점으로 친정어머니보다는 근대적이나 중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라는 김광웅과 정금자(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사노동 수행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답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이 모두 보통 정도로 답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정어머니가 기혼딸이 자신과 답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0%로 딸이 생각한 인지정도인 37.9%보다 더 많아서 어머니 쪽에서 딸과 답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반면에 답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딸이 31.7%로 26.3%이었던 친정어머니에 비해 더 많았다. 이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세대차이를 실제보다 더 과대평가하는 반면, 부모들은 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연구결과(Lerner와 Knarp, 1975 ; 노영주와 옥선화, 1987)에 비추어 볼 때, 모녀간의 가사노동 수행방식의 답음의 인지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어머니 세대는 딸 세대와 가사노동 수행방식에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딸 세대는 어머니 세대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2. 모녀간의 가사노동 세대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과 가사노동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1)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2)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심리적 변수, 3) 기혼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심리적 변수의 3가지 변수군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군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서로 상쇄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한 회귀식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렇게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각 변수군이 미치는 독립적인 설명력의 크기를 비교하여

모녀간 세대전달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결혼지속연수가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어머니: $\gamma = .952$, 딸: $\gamma = .954$), 결혼지속연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연령을 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1) 모녀의 인구사회학적 및 심리적 변수가 기혼 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는 결혼지속연수, 출생순위, 딸의 비율, 학력, 직업종류, 월평균 수입, 결혼후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와의 동거경험이 포함되었으며, 심리적 변수에는 성역할 태도와 답음의 인지 변수가 포함되었다. 한편 직업종류와 동거경험은 연속변수가 아니므로 모두 '없다'를 기준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1)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수가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가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어머니에게 귀속된 독립변수들은 기혼딸의 기기사용(21%), 가사노동 능력(9%), 가사노동 선호도(8%), 가사노동 표준(6%), 가사노동 관(3%)을 3%~21%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방정식 중 기혼딸의 가사노동 선호도, 능력, 기기사용에 대한 회귀방정식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유의미한 회귀방정식을 중심으로 설명변수를 살펴보겠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선호도에는 답음의 인지($\beta = .22$), 어머니의 직업 중 관리·전문직($\beta = -.15$)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정어머니가 기혼딸의 가사노동 수행방식이 자신과 답았다고 인지할수록 기혼딸의 선호도가 높았고, 친정어머니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경우 직업이 없는 경

2)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은 이연숙·박경은(2000)의 "가사노동의 모녀간 세대전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pp29-44 연구를 참고.

〈표 6〉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수가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사노동관 (N=308)		가사노동선호도 (N=310)		가사노동능력 (N=305)		가사노동표준 (N=298)		기기사용정도 (N=313)	
	b	β	b	β	b	β	b	β	b	β		
결혼지속연수	4.40E-02	.11	2.56E-02	.03	.16	.17*	.11	.10	-4.27E-02	-.11		
출생순위	8.82E-02	.03	-.26	-.04	-.44	-.07	-.50	-.08	-.27	-.11*		
딸의 비율	1.26E-02	.06	2.82E-03	.01	-3.14E-02	-.06	-3.29E-02	-.06	2.66E-03	.01		
학력	-.12	-.04	-.13	-.02	6.51E-02	.01	2.33E-02	.00	.83	.27***		
직업 종류 a1)	관리·전문직	-4.65E-02	-.00	-5.00	-.15*	-3.95	-.11	-2.60	-.07	1.74	.12*	
	기술·사무직	-.16	-.01	-3.65	-.06	.63	.01	-.98	-.01	1.14	.04	
	판매·서비스 ·단순노무	.34	.02	.40	.13	-.44	-.01	-1.29	-.04	-1.31	-.10	
월평균수입	-8.12E-04	-.03	2.59E-03	.05	4.32E-03	.08	8.07E-03	.13	1.10E-03	.05		
동거 경험 a2)	친정모	.25	.02	-5.44E-02	-.00	1.93	.06	2.03	.06	.19	.01	
	시모	.49	.06	-.28	-.02	-.42	-.02	-.36	-.02	-.40	-.05	
성역할태도	2.48E-03	.00	9.32E-02	.06	.13	.08	.14	.08	7.60E-03	.01		
답음의 인지	.18	.05	1.76	.22***	1.28	.15**	1.14	.13*	.15	.04		
상수	18.60		56.99		54.47		55.97		16.21			
R ²	.03		.08		.09		.06		.21			
F	.87		2.13*		2.31**		1.50		6.64***			
D-W	1.89		1.92		1.95		1.87		1.84			

〈가변수〉 a1) 직업종류 : 없다 = 0

a2) 동거경험 : 없다 = 0

*p<.05, **p<.01, ***p.001

우보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선호도가 낮았다.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8%이었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능력에는 답음의 인지($\beta = .15$), 결혼지속연수($\beta = .17$)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가 결혼한 딸의 가사노동 수행방식이 자신과 닮았다고 인지할수록, 결혼지속연수가 오래될수록 기혼딸의 가사노동능력이 높았다.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는 기혼딸의 가사노동 능력을 9% 설명하고 있었다.

기혼딸의 기기사용의 정도는 학력($\beta = .27$), 관리·전문직($\beta = .12$), 출생순위($\beta = -.11$)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즉 친정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친정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관리·전문직인 경우가 기혼딸이 가정기기를 더 많이 소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의 출생순위가 어릴수록 기혼딸의 가정기기 사용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선행연구에서도(조성은, 1991; 채옥희, 1995) 기기사용에 영향을 미쳤는데, 친정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딸의 기기사용이 높았다는 것은 학력이 주부 자신의 기기사용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기기사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그 영향력도 매우 높았다.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는 기혼딸의 가정기기 소유나 사용을 21% 설명하고 있었다.

(2) 기혼딸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수가 자신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기혼딸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수가 자신의

가사노동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기혼딸의 가사노동관을 설명하는 변수는 답음의 인지($\beta = .15$)와 결혼지속연수($\beta = .13$)였으며, 설명력은 8%이었다. 즉 기혼딸이 친정어머니와 가사노동 수행방식이 비슷하다고 인지할수록, 결혼지속연수가 오래될수록 가사노동관이 긍정적이었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답음의 인지($\beta = .24$), 성역할 태도($\beta = .12$), 시어머니와의 동거경험($\beta = .11$) 등의 변수로 나타났다. 즉, 기혼딸이 친정어머니와 답았다고 생각할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사노동을 좋아하는 정도가 높았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거나 살고 있는 경우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가사노동을 더 좋아하였다. 이는 시어머니와 동거하거나 동거했던 경우 가사노동을 좀더 자신의 책임과 과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세 변수는 가사노동 선호도의 분산을 12% 설명하고 있었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답음의 인지($\beta = .29$)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5%이었다. 기혼딸이 친정어머니와 많이 답았다고 인지할수록 가사노동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혼딸의 가사노동의 표준은 답음의 인지($\beta = .23$), 월평균 수입($\beta = .15$), 기술·사무직($\beta = -.14$)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정어머니와 가사노동 수행방식이 답았다고 생각할수록,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표준이 높게 나타났고, 자신의 직업이

<표 7> 기혼딸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변수가 자신의 가사노동 인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사노동관 (N=323)		가사노동선호도 (N=323)		가사노동능력 (N=320)		가사노동표준 (N=311)		기기사용정도 (N=323)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결혼지속연수	7.57E-02	.13*	-2.95E-02	-.02	.11	.08	-8.82E-02	-.06	-5.02E-02	-.09		
출생순위	-5.74E-02	-.02	-.32	-.05	.20	.03	3.17E-02	.01	-.37	-.15**		
딸의 비율	7.46E-03	.04	1.95E-02	.05	2.59E-02	.06	1.24E-02	.03	-8.25E-03	-.05		
학력	-.44	-.11	-1.03	-.12	-.63	-.07	-1.06	-.11	.98	.27***		
직업종류 a1)	관리·전문직	-.20	-.02	.14	.01	-.74	-.04	-2.47	-.12	.40	.05	
	기술·사무직	-.67	-.06	-1.65	-.06	-2.56	-.10	-4.09	-.14*	.34	.03	
	판매·서비스·단순노무	1.42	.07	-4.89	-.10	-2.45	-.05	-2.88	-.06	.17	.01	
월평균수입	-1.20E-03	-.03	2.27E-03	.03	7.04E-03	.09	1.25E-02	.15*	5.21E-03	.16**		
동거경험 a2)	친정모	2.42E-02	.00	-.87	-.03	-.62	-.02	-.88	-.03	.42	.04	
	시모	-3.55E-02	-.00	2.41	.11*	1.38	.06	2.38	.10	.67	.08	
성역할태도	-1.95E-02	-.02	.23	.12*	.18	.09	.13	.06	-2.46E-02	-.03		
답음의 인지	.54	.15**	1.95	.24***	2.42	.29***	1.99	.23***	-3.30E-02	-.01		
상수	22.03		57.58		52.77		58.83		12.95			
R ²	.08		.12		.15		.12		.18			
F	2.12*		3.51***		4.50***		3.47***		5.74***			
D-W	1.88		1.91		2.14		2.00		1.95			

<가변수> a1)직업종류 : 없다 = 0
a2)동거경험 : 없다 = 0

*p<.05, **p<.01, ***p<.001

기술·사무직인 경우는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표준이 낮았다.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표준이 낮다고 한 이승미(1989)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또한 표준을 낮추는 것은 취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직 기혼여성이 취업지속을 위해 사적인 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서지원(199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2%이었다.

기혼딸의 기기사용정도는 학력($\beta = .27$), 월평균수입($\beta = .16$), 출생순위($\beta = -.15$)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신의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가정기기를 많이 사용하였고, 또한,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가정기기를 적게 사용하였다. 학력과 월평균 수입이 기기사용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은 채옥희(1995)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한편,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출생순위는 모두 기혼딸의 기기사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기기의 발달과 보급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출생순위가 어릴수록 더 많은 새로운 가정기기를 접할 기회와 사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2) 기혼딸의 가사노동의 의식 및 수행과정에 대한 변수군들의 영향력 비교

기혼딸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변수군으로 분류하여 변수군들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과 기혼딸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 이외에 조사대상과 조사도구가 동일하였던 선행연구(이연숙·박경은, 2000)의 결과에서 나타났던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변수군을 연계시켜서 각 변수군의 회귀방정식의 R²값을 비교해보고자 한다(〈표 8〉 참고).

기혼딸의 가사노동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군은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과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으로 나타났다. 기혼딸의 가사노동관을 설명하는 변수군의 설명력은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관이 9%로 나타났고,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이 8%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 변수인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관의 설명력이 9%로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의 설명력보다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은 친정어머니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변수군은 딸의 가사노동관의 분산을 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선호도의 경우 친정어머니의

〈표 8〉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대한 변수군들의 영향력

종속변수 변수군	가사노동관		가사노동선호도		가사노동능력		가사노동표준		기기사용정도	
	R ²	순위	R ²	순위	R ²	순위	R ²	순위	R ²	순위
(1)	.09 ***	1	.09 ***	2	.05 ***	3	.06 ***	2	.16 ***	3
(2)	.03	3	.08 *	3	.09 **	2	.06	3	.21 ***	1
(3)	.08 *	2	.12 ***	1	.15 ***	1	.12 ***	1	.18 ***	2
합계	.20		.29		.29		.24		.55	

*p<.05, **p<.01, ***p<.001

- (1)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변수군
- (2)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
- (3)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변수,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 모두 유의미하게 딸의 가사노동 선호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수군 중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12%), 단일 변수인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선호도 또한 9%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단일 변수인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선호도의 설명력이 9%이고,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의 설명력이 8%인 것을 보면 자신의 가사노동 선호도가 친정어머니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세가지 변수군은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도를 총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군은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과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과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군 중 자신의 가사노동 능력의 설명력은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능력 변수가 5%,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이 9%, 기혼딸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이 15%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능력 변수의 설명력이 낮았지만, 유의미한 회귀식을 구성하였고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의 설명력과 합쳐본다면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와 비슷한 설명력을 보이므로 자신의 가사노동 능력의 경우도 세대전달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세가지 변수군의 총 설명력은 29%였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표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수군은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과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이었다. 이 중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12%)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표준(6%)도 기혼딸의 가사노동 표준에 영향을 미쳤다. 친정어머니의 인구사회·심리적 변수군의 경우는 유의미한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변수군의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정어머니에 귀속된 두 변수군은 기혼딸에 귀속된 변수군과 동일한 영향력을 보이므로, 기혼딸의 가

사노동에 대한 표준 역시 어머니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기혼딸의 기기사용정도도 세가지 변수군이 모두 유의미하게 기혼딸의 기기사용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정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21%)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자신의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수군이 18%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친정어머니의 기기사용정도가 16%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기기사용의 경우는 친정어머니에게 귀속된 변수군의 설명력이 총 37%로 자신에 귀속된 변수군의 설명력인 18%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딸의 가정기기의 소유나 사용정도는 친정어머니의 여러 특성과 가정기기의 사용방식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유형의 가사노동이 다른 유형의 가사노동보다 세대전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 변수군의 총 설명력은 55%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가사노동이 모녀간에 어떻게 세대전달이 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많은 변수 가운데서도 가사노동 수행방식이 서로 닮았다고 느끼는 정도인 닮음의 인지가 큰 영향력을 끼쳤다. 친정어머니가 가사노동 수행방식에 있어서 기혼딸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가사노동 선호도, 능력, 표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혼딸 자신이 친정어머니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가사노동관, 선호도, 능력, 표준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친정어머니가 기혼딸과 닮았다고 인지하는 것보다는 기혼딸이 친정어머니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의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딸들이 청소년기와 성인초기 등을 거치면서 어머니의 가사노동 역할수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가사노동의 세대전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어머니와 딸의 직업의 종류는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가사노동 선호도에는 친정어머니의 직업유형이 관리·전문직인 경우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관리·전문직의 경우는 결혼후에도 계속 취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딸과 함께 가사노동에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모녀간에 가사노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방해받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표준은 자신이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기술·사무직인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술·사무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근무시간, 출·퇴근시간 등의 융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을 낮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사무직 기혼여성의 이중 노동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측면이다.

또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기혼딸의 기기사용 정도는 어머니와 딸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종류, 딸의 월평균 수입 등과 같이 주로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변수들에 영향을 받았다. 이는 가정기기 사용 정도는 다른 가사노동의 의식 혹은 수행과정에 비해 인적 자원보다는 물적 자원과 관련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나 직업종류(관리·전문직)와 같은 변수의 설명력은 다른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비하여 기혼딸의 가정기기 사용에서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가정기기사용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세째, 어머니의 귀속변수는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였다. 가사노동 능력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어머니의 귀속변수가 딸의 귀속변수보다 설명력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사노동은 세대전달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기사용은 그 전달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과 관련된 실천적 측면과 후속연구를 위

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사노동 수행방식에 있어서 모녀간 서로 답았다고 느끼는 답음의 인지정도가 가사노동의 세대전달을 설명하는 중요 변수가 된다는 것은 가사노동의 상담과 교육을 위해서나 후속연구를 위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활동이 가사노동이라고 볼 때 가사노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식을 갖게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교육, 사회교육,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가사노동을 모녀 세대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녀간 가사노동을 분담하거나 함께 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서로 답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답음의 인지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문항개발이 요구된다. 정교화된 측정도구를 통하여 답음의 인지를 측정한다면 이 변수의 가사노동수행방식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둘째, 가사노동의 상담가들이나 가사노동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취업주부들의 역할과중과 노동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직업종류 변수는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직업종류별로 영향을 미치는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취업주부의 직업종류에 따라서 느끼는 가사노동의 부담과 대처방안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취업주부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적·공적인 대처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사노동에 대한 상담시, 이러한 취업주부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좀더 강력한 방안인 공적인 대처방안으로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모녀간 세대간 전달을 횡단적이고, 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가사노동이 갖는 가정문화 전승의 중요성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가 횡단적, 양적인 방법과 함께 종단적이고 질적인 연구가 병행되었을 때 좀더 문화전승의 측면을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세대전달을 설명해주는 일부 변수만을 밝혀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가사노동의 습득경로와 습득시기가 밝혀진다면 가사노동의 세대전달 경로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연령과 학력 등을 통제하지 않아 세대전달효과를 코호트 효과나 연령 효과로부터 정교하게 구분해내지 못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신(1987).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가치관과 가치전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3), pp. 95~106.
- _____ (1989).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의 가치전달 연구-교육과 직업에 관한 가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웅·정금자(1983).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제 22집, pp. 5~62.
- 김기순·유영주(1994).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pp. 209~219.
- 김봉애(1987). 중학교 가정과 교육이 여고생의 가사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희(1996). 가정기기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현대과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가정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애련·채옥희(1996). 어머니와 딸의 가사노동태도.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 17집, pp. 153~166.
- 김외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I). *대한가정학회지* 19(4), pp. 55~64.
- _____ (1984).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II).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 3집, pp. 679~702.
-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8). *가족자원관리*.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은주(1985). 가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여고생의 관심도와 활용정도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상업계, 인문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4). *한국가족심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 김혜선·박해인·옥선화(1990). *가족관계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 노동부(1995). *한국직업사전*.
- 노영주·옥선화(1987). 세대차이에 대한 청년기 대학생 자녀와 모녀의 지각불일치.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 12권, pp. 1~13.
- 두경자·홍계옥(1999). 여대생 딸과 어머니의 근면·검소·절약 의식과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1), pp. 145-156.
- 박신규(1992). 딸의 체험을 통해 본 모녀관계의 성격과 변화 - 30대 전문직 여성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경(1986).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지원(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취업지속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옥희·박인전(1993). 도시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가사노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4), pp. 1~21.
- 오혜영(1982). 자녀의 가정관리 의식에 관한 연구-여고생이 지각한 주부의 가정관리태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윤숙현(1997).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8).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pp. 14~26.
- 이기숙(1982). 주부의 가사노동 선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변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0(4). pp. 125~132.
- 이길표·주영애(1992). 전통사회 여성의 가사작업관에 관한 일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 제 6집. pp. 97~114.
-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박경은(2000). 가사노동의 모녀간 세대전달과 관련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pp. 29~44.
- 이은경(1992). 도시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에 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 11집. pp. 255~288.
- 이정수·고정애(1985). 가족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 대도시와 소도시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3(2). pp. 67~80.
- 이정우·윤현희(1996). 여자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사수행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pp. 33~45.
- 정미아(1992). 도시 신혼기 주부의 가사노동 선호도와 수행정도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주·문숙재(1987). 도시 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식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pp. 121~143.
- 정지영(1990). 가사노동의 서비스의 사회화와 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은(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금수(1994).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pp. 161~170.
- 지영숙·이영호·송현애(1995). 생활문화의 이해-현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채옥희(1995).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pp. 88~98.
- (1997).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pp. 13~26.
- 현은민(1994).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전달 및 가치변화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pp. 24~35.
- Acock, A.C. & Bengston, V.L.(1980). Socializa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 Actual versus perceived similarity among parents and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pp. 501~515.
- Burr, W.R., Day, R.D., & Bahr, K.S.(1993). Family Science. CA : Wadsworth, Inc. c/o. 최연실외 5인 옮김(1995). 새로보는 가족관계학. 서울 : 도서출판 하우.
- Callan, V.J. & Gallois, C.(1983). Perceptions about having children : Are daughters different from their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pp. 607~612.
- Lerner, R.M. & Knarp, J.R.(1975). Actual and perceived intrafamilial attitudes of lat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pp. 17~36.
- Millar, R. L.(1961). Home management pattern of three gener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2). pp. 95~99.
- Troll, I., & Bengston, V.L.(1979). Generation in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1). pp. 127~161.
- 大森和子·好本照子·阿部和子·伊藤ヤツ·天野寛子(1981). 家事労働. 光生館.